

있는 법 없애지 말고 없는 법 만들지 말라

담양 용화사 주지 수진 스님



단하천연(丹霞天然) 선사(禪師)가 어느 날 낙동(洛東) 해림사(海林寺)에 이르렀다. 엄동설한이라 날씨가 매우 추웠고 방도 냉골이다. 법당에 들어가 불상을 보니 목불(木佛)이었다. 선사는 불상을 끌어내려 도끼로 쪼개서 불을 피웠다. 원주가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며 꾸짖었다. “갑히 불상을 태우다니! 당신 미쳤소?” 선사는 막대기로 탄 재를 뒤적였다. 원주가 기가 막혀 물었다. “뭐하시오?” 선사가 천연스럽게 대답했다. “사리를 찾고 있네.” “아니 목불에서 어찌 사리가 나온단 말시오?” “사리가 안 나오면 나무토막에 불과한 것인데 어찌 부처님이라 할 수 있겠소?” “...”

옛 선사들의 무애자재한 행각을 얘기할 때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단하천연(丹霞天然 739~824) 선사의 일화다. 선의 입장, 깨달은 이의 안목에서 목불은 정말 나무토막일 뿐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일화로 인해 선을 잘못 알게 되고 불교에 대해 오해를 하게 된다. 진리를 설파하는 옛 선사의 격렬한 몸짓이 공부자 앞은 중생심을 들뜨게 할뿐 진정한 가르침으로 전해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다. 투철한 정신은 해보지도 않고 말로만 깨침을 얘기하는 것이다.

깨달은 이에게도 불상(佛像)은 불상이지 나무토막일 수 없다. 사리가 나오지는 않는다고 나무토막에 불과하다고 말한 단하천연 선사의 낙처(落處)는 불상의 진위에 있지 않다. 분별심에 사로잡힌 대중들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이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는 가풍 속에서 목불 하나 태우는 것은 일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목불이 아니고 마음이다.

예로부터 존귀하게 모셔온 불상은 수없이 많다. 오늘날에도 끝없이 조성되고 있으며, 법당에 여법하게 모셔져 예배의 대상이 되고 있다. 누가 목불상을 나무토막이라 하고 철불상을 쇠조각이라 말하겠는가? 이미 그 형상에 사람의 정성이 깃들고 귀여게 여기는 마음이 스며들어갔으니 형상은 형상이 아니다.

불상에 사람의 정성과 귀여 여기는 마음을 이입(移入)시키는 법식(法式)이 있다. 오랜 전통으로 전해오는 이 법식을 불복장의식(佛藏儀式)이라고 한다. 사람의 뱃속에 오장육부가 있어서 생명을 유지하듯 불상의 뱃속에 오장육부를 넣어 생령(生靈)이 숨 쉬게 하는 과정이다. 불상을 조성하고 복장의식을 하는 의의를 <조상경(造像經)>은 이렇게 설명한다.

“오직 절대 영지(靈地)인 마음과 법신향상(法身向上)의 이치 외에는 천하에 사(事)를 버리고 홀로 존재하는 이(理)나, 이를 버리고 스스로 이루는 사가 어찌

있겠는가? 대개 불상을 시설하는 법이 사에 지나치게 가까운 듯도 하나, 그 가운데는 스스로 이가 있어 사문(事門)에 두루 하고, 사는 이문(理門)에 두루 하는 것이다. 선현(先賢)은 이 복장(服藏)하는 물건을 보고 혹 후세 사람들이 사에 집착하여 이를 잃을까 염려하여 먼저 이치를 잡아 해석하고 다음 사의 한계를 들어 이와 사가 결립 없는 도리를 밝혔다.”

복장의식은 비밀리에 행해져 왔다. 불상을 모시고 점안시 전날쯤 사찰의 스님들과 복장의식을 집전하는 스님들이 모여 비공개적으로 행해 왔다. 불상에 생명을 불어 넣는 신성한 의식이기에 은밀하게 진행 되는 것이 관례다.

10월 23일 오후 2시 전남 담양문화회관에서 우리나라 전통불복장의식이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시연 된다. ‘G20개최 성공 및 남북통일 세계평화 기원 불

답는다. 이렇게 완성된 형상이 생명을 갖추고 중생들에게 자비와 진리를 베풀어 주시는 불상이 되어 눈을 뜨게 된다. 불상의 눈을 뜨게 하는 의식을 점안 의식이라 한다.

수진 스님은 불상에 생명을 넣어 ‘나무토막’에서 ‘부처님’이 되게 하는 과정이 불복장의식이란 점에서 그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불상의 조성 기원은 부처님 당대로까지 올라갑니다. 불복장의 기원도 부처님 입멸 후 탑을 세워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데서 비롯된 것으로 봅니다. 부처님의 사리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른 진귀한 상징물을 넣어 불상을 부처님과 동격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중국의 음양오행설은 우리의 장기를 금목수화토 오행에 맞추어 간장 심장 폐장 신장 위장의 오장으로 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다섯 방위를 의미하는 오방색의 오보병에 각 13가지의 보물을 넣습니다. 이를 방위와 색을 맞추어 후령통(喉鈴筒)에 넣는데, 이때 오보병 안에는 100여 가지가 넘는 물품들이 들어가고 그 내역서도 함께 봉안합니다. 후령통의 아래쪽은 넓은 원통이지만 위쪽이 꼭 구멍처럼 가는 통으로 이뤄졌는데 이곳으로 영기(靈

불복장의식 역사·문화적 가치 ‘무형문화재’로 충분

10월 23일 담양문화회관에서 최초로 공개 시연 계획

복장시연회’를 준비하고 있는 수진(守眞) 스님은 불복장의식을 정통(正統)으로 전수받아 많은 사찰에서 불복장의식을 집전해 왔다.

“불복장은 여러 측면에서 그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불상에 생명을 불어 넣는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오장육부가 있는 것처럼 불상의 복장은 오장육부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100가지가 넘게 이입되는 복장물은 모두가 진리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오곡(五穀)은 지혜의 종자를 기른다는 의미가 있고 오보(五寶)는 영원불변한 진리의 상징입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의미도 큼니다. 우리나라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의 40% 이상이 불상의 복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불복장 유물은 불상이 조성될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함께 역사학 민속학 미술사 서지학 인체문화사 복식 지물 등 다양한 면에 귀중한 연구자료를 제공합니다. 불복장물은 그 조성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신앙심과 구도심,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한 시대의 문화를 읽을 수 있는 아이러니이기도 한 겁니다. 일종의 타임캡슐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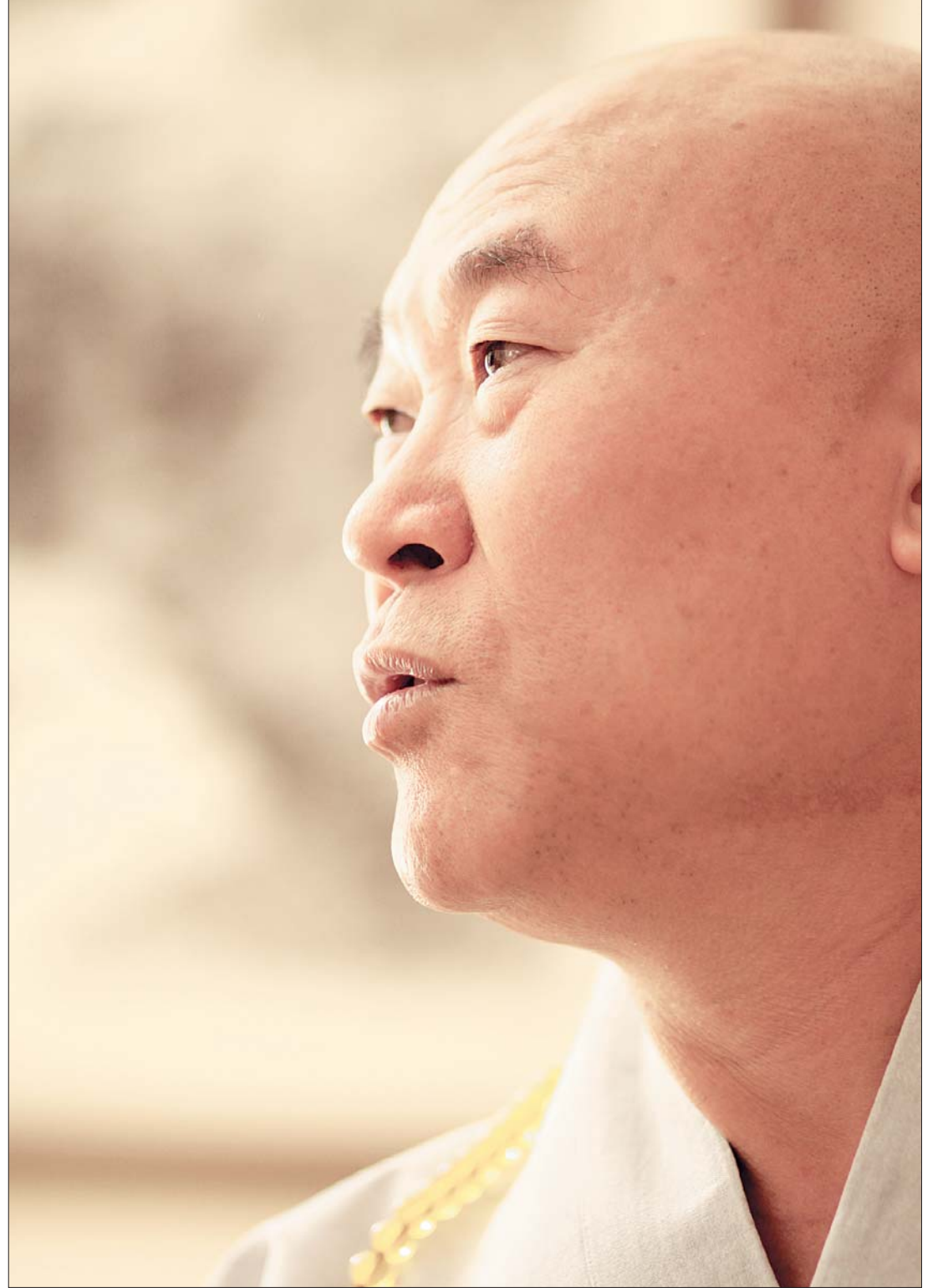
불상을 조성하는데 있어 첫 단계는 어떤 불상(보살상)을 어떤 형태로 무엇을 소재로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조성된 불상에 복장물을 이입함으로써 그 생명과 신성(神性)을

氣)가 발산되는 겁니다. 이 외에도 복장에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가는데 사경이나 의류 서적들이 일반적입니다. 불복장 자체가 불상을 법신이 되게 하는 겁니다.”

불복장의식은 간단하지 않다. 경건한 분위기와 여법한 준비, 도량의 청정성 등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티베트에서는 그 나라 방식대로 불복장 의식을 행하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에서는 언제부터인지 사라졌습니다. 중국의 일제강점기나 일본의 신수대장경, 속장경 등에 <조상경>이나 불복장 관련 내용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만은 <조상경>이 전해지고 모든 불상에 복장물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불상 조성에 대한 법식이 바르게 전승되고 있는 것입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서탑에서 부처님 사리와 장엄구가 무수히 나왔고, 766년에 조성된 지리산 석남사 석조비로자나 불상의 대좌에 사리장치를 넣었던 흔적이 있는 등 그 역사적 연원도 매우 깊습니다.”

이미 삼국시대부터 전통을 행해온 불복장의식은 조선시대 옹허 화와 스님 등에 의해 정리되어 조선 후기 호남지방에서 활약한 고승 연담유일(1720~1799) 선사로 이어지고 다시 화담법인(1848~1902) 스님으로 전해졌다. 금해관영(1856~1926) 스님이 화담법인 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목담성우(1896~1981) 스님에게 전했다. 목담성우 스님은 다시 도월수진 스님에게로 그 면면한 법식을 전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수진 스님은 20여 년 목담 스님을 시봉하며 직접 불복장의식을 전수 받았다. 무엇보다 의식의 정통성을 증명하는 <복장진언>이란 서적이 선가(禪家)의 ‘의발(衣鉢)’처럼 전해지고 있다. <복장진언>은 <조상경>을 저본으로 지은 복장의식 관련 일체의 내용을 담은 책이다. <조상경>은 전남 담양의 용현사본의 대장일람경(1575), 전남 고흥 능가사본의 관상의계(1677), 평안도 용강 화장사본의 화엄조상(1720), 경북 상주 김용사본(1746), 금강산 유점사본(1824),

간기가 없는 필사본 등 6본이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유점사본을 중심으로 한 <복장진언>은 금해관영 선사(1911)에 지은 것으로 목담 스님을 거쳐 수진 스님에게로 이어지고 있다.

“옛 스승들의 말씀에 ‘있는 법 없애지 말고 없는 법 만들지 말라’는 명구가 있습니다. 노스님(목담 스님)을 모시면서도 가끔 이 말씀을 들곤 했습니다. 이미 있어서 전해지는 법은 반드시 그 가치가 있으므로 없애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는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만들어서 혼잡스럽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있는 법을 잘 지키지도 못하면서 없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 치료!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부림출판사 | 감성목 지음 | 값 5,000원

이 책은...

- 천연 아미노산의 작용, 만병의 근원인 과산화지질의 퇴치법, 현대병 예방과 회복을 주도하는 미네랄 삼총사, 섹스 미네랄 아연과 차력 미네랄 유기동, 여성 질환의 예방과 치료, 백옥 같은 살결 만드는 비법, 효소의 작용, 각종 질병을 다스리는 방법 등을 상세히 수록하고 있다.
- 당분초, 중약대사전, 본초습유, 식물 명실도고, 영남제약록, 광서중약지, 본초추진, 호남 약물지 등에 기록되어 오랜 세월 동안 질병을 치료하는 귀한 약초로 쓰이고 있는 삼백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 체내 환경을 정비하고 항염·항균·분해 작용을 하며 세포를 부활시키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효소의 질병 치료 기전을 자세히 정리하고 있다.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능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 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사례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만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